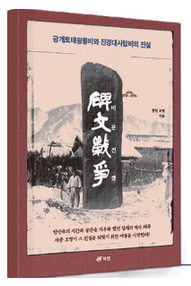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6~3/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멸(3)아무래도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6	불교성전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무비스님의임제록강설	임제의현/무비	불광	7	불교와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21)불교의지혜와서양의과학이만나다	엘런 윌리스 편집	운주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불멸(2)실체없는자존심	이각 지음	지혜의눈
4	무비스님신금강경강의(어플경전강의01)큰글자책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9	금강경육조대사구결	육조/백운/이동형운주사	
5	성철스님의신심명증도가강설	성철 스님	장경각	10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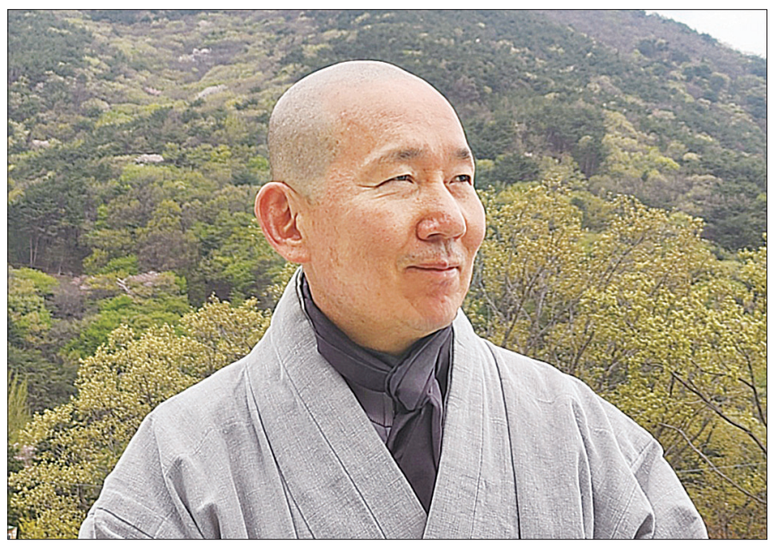
책세상

'광개토태왕릉비·진경대사탑비의 진실은…



비문전쟁
도명 스님 지음
북랩출판사/2만 원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의 변조된 비문 추적 원래 내용 복원
진경대사탑비 변조의 실체 확인해
도명 스님 "역사 있는 그대로 봐야"



저자 도명 스님.



광개토태왕릉비 동쪽 1면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일 역사 왜곡의 도구로 악용됐던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의 진실을 파헤친 신간 〈비문전쟁〉(부제: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의 진실)이 출간됐다.

도명 스님(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이 집필한 이 책은 일제가 변조한 비문을 추적해 원래의 내용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고대사의 숨겨진 조각을 찾아가는 역사서다. 특히 '가야 임나설(伽倻 任那說)'의 근거가 되어 온 광개토태왕릉비와 진경대사탑비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참모본부의 역사 조작을 밝혀내며, 한·일 역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열었다.

가야 임나설은 고대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거나 일본과 밀접한 종속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본 학계에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과 연결되며,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임나'는 고대 문헌에서 가야를 지칭하는 명칭 중 하나다. 특히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임나(任那)'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일본 학계는 이를 바탕으로 가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석해 왔다.

임나일본부설은 4~6세기 동안 일본이 한반도 남부(가야 지역)에 일본부(일본의 지방 행정 기관)를 설치하고 다스렸다는 주장이다. 일본 학계에서는 이를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근거로 삼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됐다.

광개토태왕릉비는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지만, 19세기 말 일본군이 조작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명 스님은 "일본 참모본부가 광개토태왕릉비의 '신묘년 기사'와 '경자년 기사'를 변조해 한반도 남부에 일본 세력이 존재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비문의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스님은 기존 연구의 모순을 분석하고, 원석 탁본의 신뢰성까지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원석 탁본이 변조되지 않았다는 학설은 오류"라며 "일제가 밀정을 파견해 역사 조작을 시도했고, 변조된 원석 탁본을 이미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경대사탑비 역시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해석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스님은 "일제가 김유신 장군을 진경대사의 선조로 만들기 위해 비문의 문장을 조작했다"며 "실제 내용은 김유신이 대사의 조상이 아니라, 귀순한 초발성지(初發聲地)와의 관계를 기리는 내용"이라고 설명한다.

일본과 국내 일부 학자들은 진경대사탑비의 잘못된 풀이를 바탕으로 가야 지역이 고대 임나이며, 가야 왕족의 후손인 김유신을 임나의 왕족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 핵심 근거는 비문 속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大師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任那王族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遠祖興武大王."

일반적으로 '임나 왕족 초발성지(草拔聖枝)'를 "임나의 왕족이요, 풀에서 성스러운 가지를 뽑았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도명 스님은 이를 잘못된 풀이로 본다. 그는 초발성지를 인명(人名)으로 해석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도명 스님에 따르면 초발성지는 대사의 선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며, 일본열도 내 임나 왕족이었으나 주변국의 침략으로 인해 신라에 투항했다. 그리고 당시 신라의 국왕이었던 선덕여왕이 아니라, 김유신 개인에게 귀순하면서 신김(新金) 씨 성을 받게 되었고, 이후 신김 씨 가문의 중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비문의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사의 이름은 심희요, 속성은 신김씨이며, 그 선조는 임나 왕족 초발성지인데, 매번 주변국 병사들에게 괴로움을 받다가 우리나라의 먼 조상 흥무대왕에게 투항하였다. 흥무대왕은 오산의 정기를 받고 동해의 정기를 타고서 문부를 쥐고 재상의 집안에 태어나 무략으로 왕실을 높이 떠받들었으며."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생략되었지만, 앞 문장의 목적어인 '흥무대왕(興武大王)'이 반복되며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맥상 명확하다는 설명이다. 흥무대왕은 신라의 김유신을 추존한 칭호이다.

도명 스님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경대사탑비의 문장을 변조했음을 밝힌다. 특히 명사를 동사·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으로 문장의 의미를 변형시켜, 비문의 본래 의미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도명 스님은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제의 역사 왜곡이라는 미망을 걷어내고 두 비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명 스님은 정여 대종사를 은사로 1998년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불국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토굴과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2009년부터 김해에서 포교 활동을 하며 가야의 역사와 인연을 맺었다. 현재 잃어버린 가야불교의 발굴과 왜곡된 우리 고대사를 바로 세우는 데 힘쓰고 있다.

한국인 사유 근간 '동양사상'



지혜로운 삶을 위한 동양사상 강의
성태용 지음 / 북튜브 / 2만2천원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급격한 서구화를 겪었다. 하지만 우리 정신세계의 근간은 동양적 가치관에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양사상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책 〈지혜로운 삶을 위한 동양사상 강의〉는 여전히 한국인의 사유 전반에 흐르고 있는 동양사상을 인도와 중국의 사상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책이다. 저자는 책에서 인도와 중국의 사상을 넘나들고 때로는 서양철학까지 보탬으로써 동양사상 전반의 지도를 그려낸다.

우선 불교를 통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도의 사상으로는 〈바가와드 기타〉를 중심으로 베다 전통의 '정통'철학을 설명하고, 그에 대립하며 시작된 '비정통' 사상인 불교의 핵심적 교리와 역사적 전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

중국 쪽 사상은 우선 유가 사상으로는 공자, 맹자, 순자와 같은 선진시대 유학을 설명하고, 각각의 사유가 공유하는 지점과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노장, 〈주역〉. 성리학까지 한국인의 심성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사상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책은 시공간적으로 넓은 범위의 사유들을 다루고 있지만,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일관적인 관점은 '사상과 토양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서구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개 동양사상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과학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사상'이라는 생각과 '비인간적인 서양의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생각이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우리의 사유와 심성을 만들어 왔고, 여전히 내면에 저류하고 있는 사상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뿐더러 그 훌륭한 점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그렇다고 그 사상을 지금-여기에서 바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특정한 사상은 특정한 토양에서 특정한 인간성을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의 동양사상'을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그렇게 했을 때, 동양사상을 낡은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하거나 '동양의 것이 가장 좋다'라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수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동양사상이 오늘날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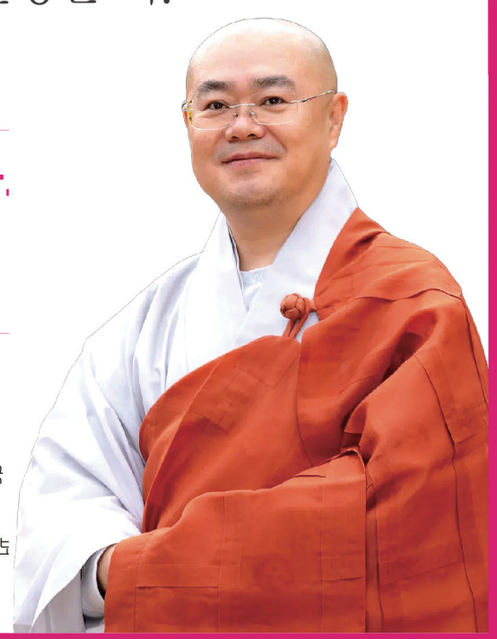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